
2026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주요 업무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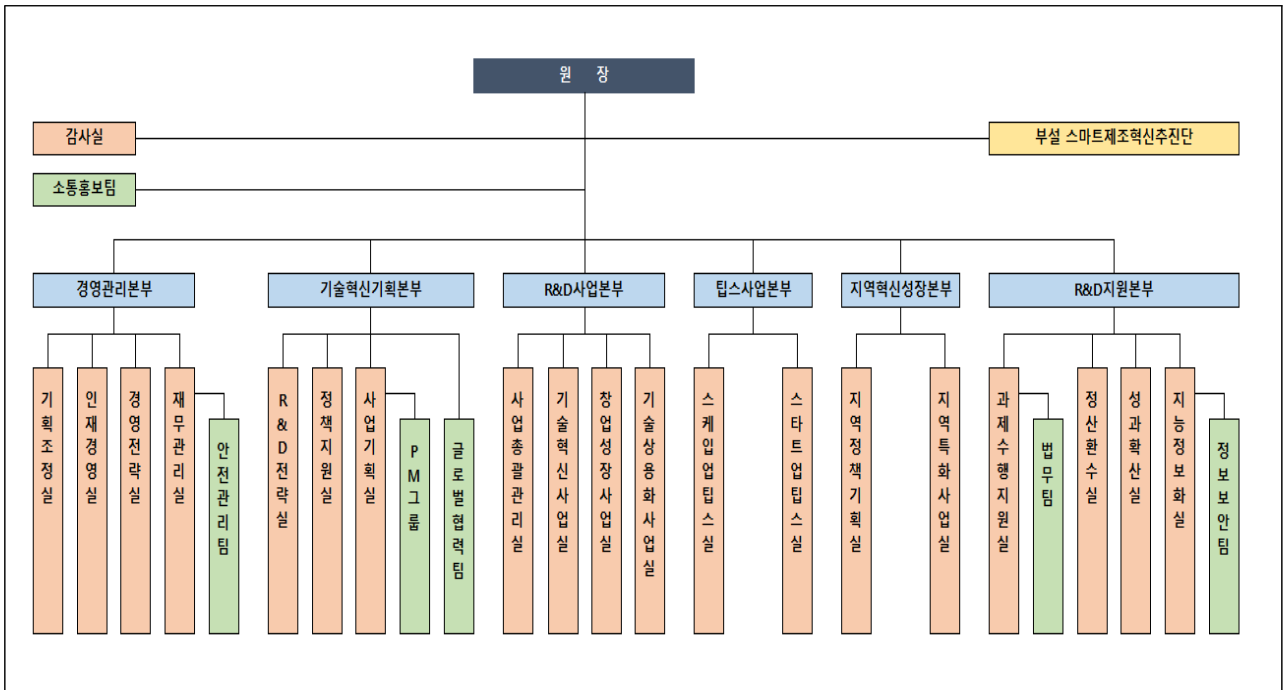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○ (조직) 6본부, 20실(1그룹, 5팀), 1부설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

* 설립근거 :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, 설립일 : '02.1.22, 소재지 : 세종
부설기관 : 기관 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전담조직(별도법인 해당없음)



2 인원 현황

구분 \ 직급별	계	상임임원	1급	2급	3급	4급	무기직	임금피크
정원	295	1	5	18	89	125	56	1
현원	292	1	3	16	84	135	52	1

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감 (B-A)	(B-A)/A
계	1,848,971	2,652,292	803,321	43.4
□ 정부수탁사업	1,840,939	2,643,507	802,568	43.6
R&D지원사업	1,482,238	2,145,609	663,371	44.8
비R&D지원사업	358,701	497,898	139,197	38.8
□ 기관운영	8,032	8,785	753	9.4

I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추진실적 및 성과

□ (R&D) 전략기술 분야 R&D 지원기반 확대 및 기술사업화 촉진

- (글로벌R&D) 해외 우수 연구기관* 협력체계 구축 → 전략기술 분야 등 265개 RFP 발굴, 사전연구 66개 과제 선정·지원(최대 3년, 15억원)

* MIT, 퍼듀대학교, 프라운호퍼연구소, 슈타인바이스재단 등

- (DCP 뱅크) 딥테크 전략기술 BANK* 도입 → 우주항공, 첨단바이오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(DCP) 20개 과제 선정·지원(최대 3년, 36억원)

* 발굴·기획된 프로젝트(RFP) BANK 상시 공개 → 투자유치, R&D 준비 기회 제공

- (기술사업화) ①글로벌 투자 기회 확보, ②우수성과 확산·혁신제품 지정 등 R&D 사업화 촉진

* ① R&D수행기업-글로벌 VC 밋업 개최 : 싱가포르('25.7), 보스턴('25.11)

② 우수성과(50개) 선정 사업화·홍보 지원, R&D혁신제품 지정(95개) 판로지원

□ (스마트제조) AI 기반 스마트제조 3.0 추진의 신속 이행 체계 마련

- (정책운영 효율화) ①사업 추진 절차 신속화, ②제조AI 특화지원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체계 고도화

* ① 주요사업 조기공고('25.10), 추진절차 12단계(23개월) → 8단계(14개월) 축소

② AI기술 활용 공정 최적화, 예지보전 등을 지원하는 제조AI 특화지원(100개)

- (신규사업 기획) ①AI응용제품 상용화, ②Multi AI Agent 등 제조현장 수요 반영 신규정책 기획 → 제조현장 AX 전환 가속화

* ① 제조현장 AX응용제품·서비스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('25.9.2~23), 테마(품목) 기획

② 제조 특화분야 발굴 및 식품·뷰티 산업의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사례 도출

- (정책대상 확대) 제조기업 중심의 정책대상을 ①제조산업육성, ②제조 AI 생태계 조성까지 확대 → 국정과제·전략 이행 기반 마련

* ① 스마트 제조 전문기업제도('26. 시행), 스마트제조산업 전략기술로드맵 기획 착수

② 지역 주력 업종의 AI 전환을 지원할 '지역제조AI센터' 3개소 구축 등

2 보완점

□ (R&D) 역대 최대 규모 편성 R&D 예산의 전략적 지원 필요

* TIPA R&D 예산 : ('23) 1.75조원 → ('24) 1.38조원 → ('25) 1.48조원 → ('26) 2.15조원

○ (기술-시장 간극) 대학·출연연 등 공공기술과 시장의 간극 최소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마련 필요

* 공공연구기관이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 비율 19.2% 수준('24.12, 산업부 실태조사)

○ (지원체계 개편) 틱스방식 R&D 세부사업 간 연계 및 성장 주기별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필요

* 틱스 R&D : ('25) 6천500억원 → ('26) 1.1조원(약 70% 증가)

○ (정책 접근성) 사업 신청 시 복잡한 신청서류 등 기업 부담 지속 → 정부 R&D 정책의 접근성 제고 필요

□ (스마트제조) 중소 제조업의 AX는 걸음마 단계로, AX 활성화를 위해 제조기업 ↔ 기술기업 간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 시급

○ (스마트공장 구축현황) 전체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도입율 19.5%, 기초 위주 스마트공장 75% 등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은 현재 진행형

○ (AX 현황)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AI 도입률 0.1% 및 향후 도입계획 1.4%로 조사되어 AI 기술 도입은 걸음마 단계

* 제조 전반의 DX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,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DX·AX 생태계 조성 필요

□ (지역혁신) 수도권 1극 체제 심화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축소

○ 혁신기업 창업·성장 수도권 집중 → R&D 격차 확대, 편중완화 시급

* 500대 기업 77%, AI 관련 기업 75%, 국가 R&D 70% 이상 수도권 집중

○ AI 격차는 생산성, 원가, 품질, 고객 확보력 격차로 연결 → 지역의 AI 전환은 지역기업의 생존과 직결

3 향후 업무추진방향

미션

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스마트화를 통해
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

비전

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끄는 TIPA

중
점
추
진
과
제

1. R&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

- ① 한국형 STTR, 기술사업화 전용 R&D 활성화
- ② 민간투자 연계 R&D 지원 강화
- ③ 중소기업 R&D 지원 전달체계 개선

2.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

- ① 지역 중소기업 AI 신속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
- ② 스마트제조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

3. 지역혁신선도기업 성장 촉진

- ① 지역혁신역량의 전략적 지원 강화
- ②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Ⅲ. 중점 추진과제

1 R&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(국정과제 35)

- ◇ 공공R&D 성과가 사업화로 확산되는 한국형 STTR 활성화
- ◇ 민간투자 연계, 틱스 방식의 R&D 단계별 지원체계 확립·지원 확대
- ◇ R&D 전달체계 개선 및 과제 선정의 전문성·공정성 강화

① 한국형 STTR, 기술사업화 전용 R&D 활성화

□ (민관 공동 R&D) 공공기술 이전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(1단계기술·시장검증 → 2단계R&D → 3단계후속 사업화) 지원('26. 신규 500개, 1,299억원)

- 대학·출연연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①TRL* 점프업(100개), ②기술이전 사업화 트랙 운영(200개)

* TRL(Technology Readiness Level), 기술성숙도를 기초연구-양산까지 9단계로 구분

①TRL 점프업(지정공모)	②기술이전 사업화(자유공모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략분야 등 고난도·혁신형 과제 타킷형 지원 ■ 기술이전기관(출연연·대학)과 공동기술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급성이 높은 시장지향형 과제 오픈형 지원 ■ 중소기업 단독 기술개발(필요시 기술이전기관 참여)

- 과제별 성공적 기술이전 → 사업화를 위한 밀착 지원기관 선정·운영

* PoC, PoM, IP R&D, 기술자문, 투자연계, 실증 등 지원(KAIST, KETI 등 5개 기관)

<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&D 단계별 지원 >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·시장검증 지원 ■ 최대 9개월, 1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화 R&D 지원 ■ 최대 2년, 10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포스트 R&D 사업화패키지 ■ 투자, 용자, 보증 연계

美STTR : 연구기관-중소기업 기술이전·사업화 프로그램(예산의 일부 기술이전·사업화 R&D 의무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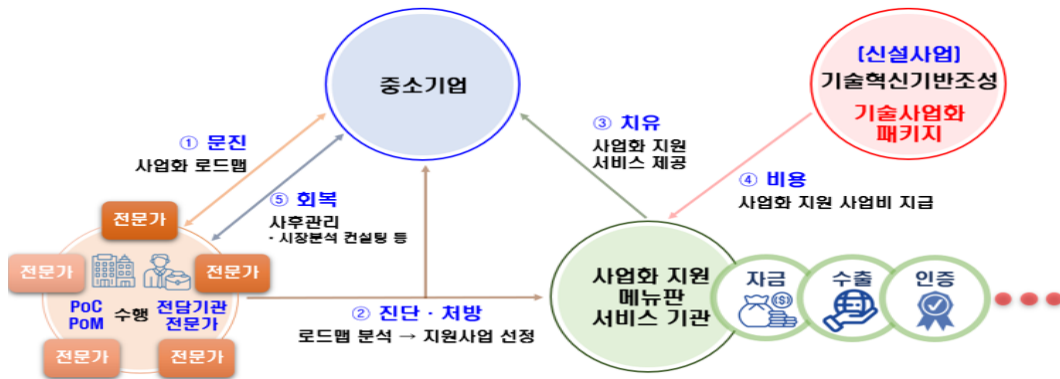
- 대·중견기업 등 수요처 구매연계·상생협력* R&D지원(200개)

* 구매연계 : 정부지원금(6억원 이내) 3배 이상 수요처 구매·계약 조건

상생협력 : 정부지원금 대응 투자 조건(대·공기업 1:1, 중견기업 3:2 상생기금 매칭)

- (기술사업화패키지) R&D 우수과제 대상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강화
 - 기업사업화 로드맵 설계·신청 → 전담기관사업화 로드맵 진단·프로그램 처방 → 정부사업화 프로그램 지원(160개, 최대 1.5억원)
 - 수출, 마케팅, 해외인증 등 사업화 서비스를 메뉴판 방식 구성 → 보조금 지원 및 양산 자금 보증 신청 시 우대
 - 사업화 지원 전문역량을 갖춘 진단·처방 전담기관 선정·운영(3개)
 - * 일반 2개, 제약·바이오 분야(임상시험 등 특수성 고려) 특화 전담기관 1개 운영

<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체계 >



2 민간투자 연계 R&D 지원 강화

- (확대개편) 기업의 혁신성과가 이어지는 ‘성장 전주기 지원’ 강화
 - 후속·매칭 투자를 매개*로 ‘팁스 → 스케일업팁스 → 글로벌팁스’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운영('26. 1,020개, 8,183억원)
 - 성장·글로벌 단계 운영사 확대(24개 → 80개) → 개방·자율·경쟁 기반 조성, 스케일업 기업 선별기능 강화
 - * 이전 단계 지원 후속투자를 다음 단계 지원 시 선투자 실적으로 인정

창업 (팁스)	성장 (스케일업 팁스)	글로벌 (글로벌 팁스)
민간투자 2억원 이상	민간투자 10억원 이상	민간투자 15억원 이상+해외투자
R&D 2년 8억원	R&D 3년 20억원 ~ 30억원	R&D 4년 50억원 ~ 60억원

○ 대규모 ‘가칭’팁스 IR 주간’ 추진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 지원 강화

- * 글로벌 R&D지원센터 : ('25) 미국(보스턴) → ('26~) 유럽(독일 프라운호퍼 등) 신설
- 민간투자 촉진 : ('25) 단기 IR 중심, 사업별 분산 → ('26) IR 통합·연계, 홍보강화

□ (전략기술집중) 6대 전략분야(ABCDEF) 중심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지원

○ 컨소시엄 방식(투자사+학·연·컨설턴트) 특화운영사 지정·등록(30개)

→ 전략 분야별 투자·R&D·글로벌 견인

- * 특화운영사에 국가전략기술, 지역주력산업, 탄소중립 등 정책지정형 과제 배정

○ 팁스 수행 스타트업 中 딥테크(초격차) 분야* 고난이도 R&D 지원 ('26. 180개, 2,172억원)

- * 시스템 반도체, 빅데이터·AI 등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

○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기술도전·생태계혁신으로 확대, 무빙타겟* 방식 적용 등 프로젝트 기반 책임관리** 강화('26. 40개, 709억원)

- * 시장수요,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R&D 과제의 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

** PM 중심 과제기획, 전략투자로드맵, R&D 수행 등 지원

딥테크 팁스(180개)	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(DCP)	
	①기술도전형(35개)	②생태계혁신형(5개)
팁스수행+민간투자 5억원 이상 3년 15억원	민간투자 20억원 이상 3년 50억원	민간투자 30억원 이상 4년 200억원

· DCP : PM 등 전문가가 도전·혁신형 과제를 기획·제안 → 기업·VC·연구기관 등이 문제해결에 도전

① 기술도전형 : 초격차·난제 기술개발 과제

② 생태계혁신형 : 공급·수요기업 등 생태계 주체가 빅프로젝트 팀을 결성해 생태계 자체를 혁신하는 과제

□ (거버넌스) 팁스방식 R&D를 다양한 기술·산업 및 지역으로 확산

○ 팁스방식 R&D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력체계* 지원 실무 담당 → 부처별 정책수요를 민간투자 매칭 및 R&D 지원으로 연계**

- * 팁스R&D 협의조정위(국·과장) + 팁스R&D 추진단(PM, R&D전문기관, 민간전문가 등)

** 부처별 기업·과제 추천 → 운영사 등 매칭 → 투자유치 시 R&D 우선 지원

○ 지역기업 대상 팁스방식 R&D 우대 지원 확대

- * R&D 과제 지역기업 우선 할당(50% 이상), 지역기업 선투자 요건 완화(30~50%) 등

3 중소기업 R&D 지원 전달체계 개선

- (사업 탐색) 맞춤형 R&D사업과 준비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AI챗봇 개발
- (과제 기획) R&D 기획역량이 부족한 기업 대상 AI 활용 기획지원
 - 축적된 R&D 지원과제와 사업계획서를 학습시킨 AI 모델 개발
 - AI 전략 수립 전담조직 신설('26.1) → 차질 없는 이행관리 강화
- (신청서 제출) 제출서류 최소화를 통해 R&D 신청기업 편의성 제고
 - R&D 과제 신청 시 평가에 필수적인 서류(사업계획서)만 제출
 - * 기업확인서는 직접 제출방식 → 지정원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
- (과제선정) 선정평가의 공정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
 - ① (사전검토) 평가자료 사전 제공(평가일 1일 전) 충분한 검토 기반 평가
 - * (평가 1일 전) 평가자료 사전 검토 → (평가 당일) 검토결과 점검·확인, 대면평가 실시
 - ② (재평가) 평가결과 하위 10% 과제 + '可'판정¹의신청 과제 통합 재평가
 - ③ (2단계 평가) ¹단계사전연구, 기술·시장성 검증(PoC·PoM, 약 2배수)
→ ²단계R&D지원 방식 도입(민관공동 R&D 등)
 - ④ (시장검증) 민간시장에서 검증된 과제 선별* → 정부수시평가·지원
 - * 틱스·스케일업틱스 운영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·투자하면 정부가 수시선정·지원
 - ⑤ (평가위원) 평가위원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전문성·책임성 강화
 - 평가위원 풀(2만명 → 3만명, ~'27.) 및 주요 R&D 사업(10억원 이상 과제) 평가단 규모 확대(5~7명 → 7~9명)를 통한 전문성 강화
 - 평가위원 역평가 제도 강화 → 불성실·불공정 평가위원 배제
 - * 역평가 : 기업이 평가위원의 성실·공정 여부 평가, 불성실·불공정 위원 위촉 제외
- (통합플랫폼) 58개 중소기업 지원 정보시스템 회원통합 우선 구현
 - 통합설계('26.1월) → SSO모듈 연계개발(4월) → 테스트·서비스 오픈(6월)

2

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(국정과제 35)

- ◇ 제조현장의 AX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및 확산기반 마련
- ◇ 제조 AI 전문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

1 지역 중소기업 AI 신속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

- (맞춤형 AI 지원)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 확대
 - (자율형공장) AI적용사례^{불량검출·산재예방} 확산을 위해 기획기관*을 통한 사전 전략수립 → 공정별 특화AI 구축 확대('25. 100개 → '26. 400개)
 - *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지역TP, 대학, 연구기관 등 검증된 기획기관 참여
 - (대중소상생) 대기업 참여 유인 제도 개편* → 大·中企가 현장에 맞춰 자율 기획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활성화('26. 270개)
 - * 구축 목표 수준 자체 선정기준 부여, 서면평가 → 요건검토 선정절차 간소화
사업비 부담률 : 정부 30%, 대기업·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자부담 40%
- (특화 지원) 개별기업 지원방식 → 협력·연계 등 복합적 지원 강화
 - (업종별 협업) 중소기업 강한 분야^{K-뷰티·푸드}의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→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유도
 - * 노동부(산업안전), 방사청(방위산업), 식약처(화장품, 식품), 과기부(보안) 등 8개 부처 지원방식 : (중기부(기정원)) 스마트공장 + (협업부처) 인증·판로·컨설팅 등

중기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+	산업부	과기정통부	농식품부	해수부
	조선, 자동차부품 등	보안, 5G	농산업	수산업
	노동부	방사청	식약처	복지부
	산업안전	방위산업	화장품, 식품	의약품·의료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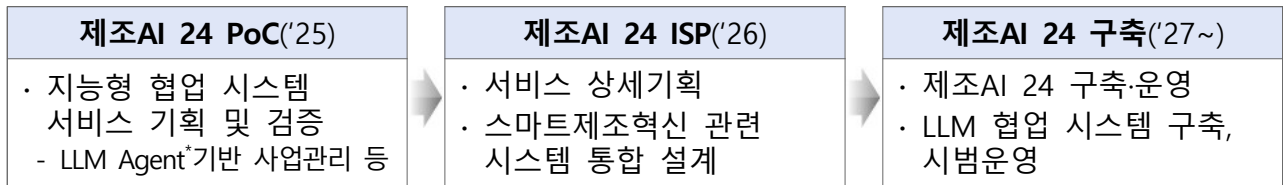
- (지역 연계) 지역별 주력산업을 고려한 제조기업 선정, 정부+지자체가 매칭하는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→ 지역 중소기업 성장 촉진
 - * ('25년) 3개 지자체(경북 : 식품, 전남 : 식품, 전북 : 농생명 바이오)
→ ('26년) 기존 3개 지자체에 추가로 2개 내외 지자체 신규 참여 예정

□ **(지원체계) AI도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**

- **(제조AI 24) 수요자 중심 정책추진***, DX·AX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전달체계 전환('26. ISP → '27.~ 구축, 예산 반영 추진)

* 스마트공장 구축부터 제조데이터 분석, 제조기업·전문기업 매칭 등 원스톱 지원

<제조AI 24 구축 로드맵>



* LLM Agent : 질의응답을 통해 ①수요·공급기업 매칭, 지능형 검색 서비스, ②맞춤형 사업계획서 샘플 제공

- **(자발적 AI 확산)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표 개편(안전·환경·AI반영), 중소제조 주력분야의 AI도입 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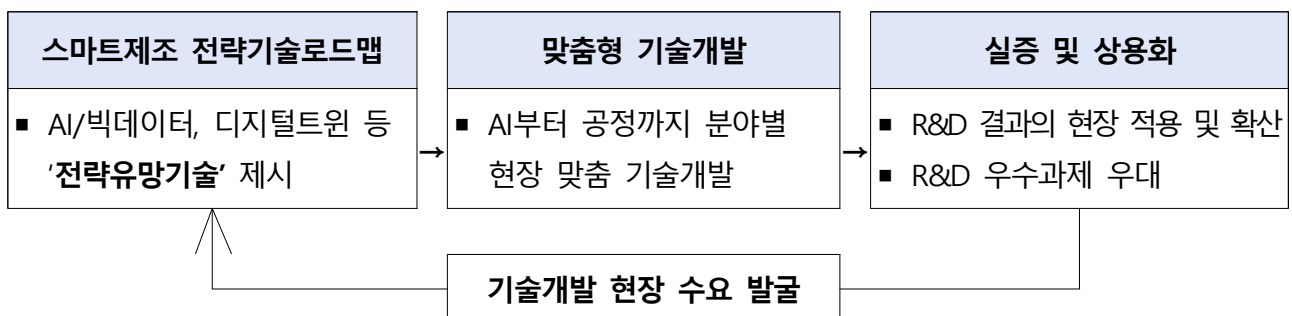
* 심사에서 확인된 진단 영역별 취약점에 대해 DX멘토단 연계를 통한 개선방안 등 컨설팅 지원 후 맞춤형 AI 지원사업 참여 유도

② 스마트제조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

□ **(제조AI전문기업) AI기반 역량 평가, 맞춤형 컨설팅 등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육성 체계 마련 →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('26. 100개)**

- **(육성 기반) 「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」 제정('26. 상반기 발의)에 따른 하위법령 정책 연구,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특수분류 신설**
- **(전문기업 지정제도) 우수 제조AI 솔루션·제품의 개발·보유 실적, 시장 채택률, 혁신지원 성과 등 전문기업 평가·지정기준 마련**

- **(제조AX기술개발) AI기반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수립**
 - 제조AI R&D 전략적 추진, 제조 AI솔루션·장비 신속 개발 추진
- **(기술로드맵) AI 등 기술메가트렌드 반영 제조기술 로드맵 제시**
 - 전문기업의 R&D·투자방향 설정, 스마트제조 생태계 고도화
- **(AX 신속 상용화) 공정혁신 분야에 즉시 확산 가능한 AI응용 사업 모델 기획·발굴*** → AX제품·서비스 신속 보급·확산('26. 36개, 645억원)
 - * 민간 기업 및 지역 유관기관 참여 → 사전수요 804건 발굴('25.9.)
 -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, AI 적용의 중요성 및 유사 업종으로의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, 지정공모 추진 및 지원유형 다양화
 - * 지원유형은 ①중소제조 현장문제 해결형 분야, ②지역주력산업 선도형 분야로 구분하고, 지원기간 및 사업예산은 사업 목적에 따라 차별화(1년 20억, 2년 30억)
- **(Multi AI Agent) K-뷰티 등 중소기업 특화 분야*의 다양한 공정 대응, 품질 최적화 등을 도와주는 AI Agent 기술개발**
 - * 수출주력 및 소비자 밀착 산업 4개 분야 : ①뷰티, ②식품, ③제약, ④자동차부품
 - 기술개발(공급)+제조(수요처)+산·학·연·협 공동연구 → PoC를 기반으로 실증·심층 적용까지 전주기 지원('26. 36억원, '27.~'28. 312억원)
 - * ('26) PoC 시범연구(12개, 최대 3억원) → ('27~'28) 개발·실증·고도화(8개, 최대 39억원)
- **(R&D확산) 제조R&D 성과물 활용 →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으로 연계**



3

지역혁신선도기업 성장 촉진(국정과제 35)

- ◇ 지역주력산업에 기반한 지역기업 성장 촉진
- ◇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 운영

1 지역혁신역량의 전략적 지원 강화

- (주력산업) ABCDEF 전략을 반영, 주력분야의 AX 촉진 및 개편
 - 5극 3특 성장엔진, ABCDEF 전략*을 반영하여 6대 분야에 AI를 공통 Tool로 적용하여 주력분야의 AX를 촉진
 - * [A]인공지능 + [B]바이오, [C]문화관광, [D]방산·우주, [E]에너지, [F]제조 & [M]모빌리티
 - ** 모든 지역주력분야에 AI를 융합하여 생산성 및 성장성 극대화 추진
 - 바이오·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지역 수요를 받아 지역주력분야를 선정하며, 지역 내 밸류체인을 광역 간으로 확장
 - * 지역당 5개의 수요를 제출받아 지역당 3개를 우선 선정하고, 민선 9기 출범 후 수요를 반영해 2개 추가 선정 예정
- (지역혁신전용 R&D) 지역 유망 잠재기업이 주력산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도록 지역혁신 성장 R&D 지원
 - *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 지원규모 : 총 1조 445억원('25~'29)
 - (내역¹)주력산업 생태계구축(최대 2년, 연7억원) : (예비)선도기업 대상 협력형 R&D
 - (내역²)지역기업 역량강화(최대 2년, 연2억원) : 잠재기업 대상 혁신 R&D
 - (전략품목 발굴) 주력산업 개편에 따라 품목 확대·발굴(342→750여개),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중점 육성 품목 고도화
 - *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현장수요 반영, 기존 품목에 AX/DX 등 AI 융합
 - (우수기업 선정) AI융합기술 및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* 등 우수과제 선별
 - * 선정평가 지표 중 '지역 내 인재 활용 지표(5점)' 신설 등

□ **(지역생태계 강화)** 주요 R&D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성장 기회 확산

○ 기술혁신 R&D 등 5개 사업* 신규과제 예산의 50% 이상을 지역기업에 할당하여 우대 지원**

* 대상 : ①기술혁신, ②민관공동기술사업화, ③투·융자연계, ④창업성장, ⑤산학연Collabo

** 지역기업 대상 R&D사업 선정평가 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(2점) 부여

2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**(지역기업 경쟁력)** 지역 주력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기관(TP 등)을 통한 현장 맞춤형 경영기술 애로 해소

○ (성장단계별 육성) 잠재기업-선도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 프로그램* 운영(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, '26. 248억원)

* R&D 과제기획, 기술·경영 컨설팅, 시제품 제작, 제품 고도화, 시험·인증·분석 등

<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>



○ (지원사업 연계)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연계하는 지역별 특화프로젝트 지원(37개 프로젝트 운영 중)

< 지원분야별 연계지원사업 현황 >

분야	사업명	지원기관	분야	사업명	지원기관
컨설팅	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	중진공	제조혁신	⑥ 스마트공장	기정원
수출	② 수출 바우처		사업화	⑦ 지역주력산업육성	
정책자금	③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	창진원	인력	⑧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	
창업·성장	④ 창업중심대학		R&D	⑨ 산학연 Collabo R&D	
보증	⑤ 기술보증	기보	(전용) 5개 분야 495억원/(비전용) 4개 분야		

□ **(지방소멸 대응)** 지방소멸 위기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육성

○ 인구감소·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*가 제안한 지역연고산업(자원) 활용 지원프로그램** 운영

* 신규과제수(개) : ('24) 26 → ('25) 33 → ('26) 20

** 애로기술 컨설팅, 시험분석 및 인증 획득,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디자인 개선 등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중소기업-출연연 간 기술협력 기반 유지

□ (쟁점) PBS 폐지는 연구자 과제 수주 부담 완화, 출연연의 임무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

○ 다만, 출연연-중소기업 협력, 공공기술 사업화 축소 우려

현
장
목소리

■ PBS가 없다면 기초연구는 늘어나고, 소액 상용화 연구인 중소기업 협력 과제는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런 상황(産-研 협력 중소기업 대표)

□ (해결방안) 출연연 -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

○ (사업기획) 산학연 협력 기반 전용 R&D 사업 신설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ILP*의 멤버십 프로그램 등 기획 추진

*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 **Korea Industrial Liaison Program** : 대학, 출연연별 특화된 중소기업 기술혁신,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(멤버십 제도 기반), 협력R&D 등을 지원
⇒ '27~'33년(7년), 총사업비 9,722억원(국비 7,280억원) 규모 신규사업 기획 추진

- (혁신성장멤버십) 대학·연구소가 주도하는 ILP 멤버십 프로그램에 정부가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, 중소기업은 멤버십 가입
- (신사업진출 협동사업화R&D) 매출에 즉결되는 기존 주력제품·시장의 전환(고도화)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R&D 적시 지원

○ (협력확대) 중소기업 기술애로에 대한 정기적 조사, 구조화를 통해 출연연 보유 기술 및 연구자와 매칭할 수 있는 기반* 마련

* (예시) R&D 참여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보증기금(스마트테크브릿지)과 협력하여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매칭데이 개최 등

② 지역 제조 AI 확산 활동 강화

- **(쟁점)** 국정과제, 「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.0 전략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의 적극적 참여 필요
 - * 공장보유 제조기업의 51.5%는 비수도권 소재(8.3만개)
- **(대응방안)**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협의체 구성, 지역행사, 홍보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제조 AX 확산 촉진
 - **(지방청 협업 확산)** 지방청-지자체-기정원-지역제조혁신센터 협업을 통해 지역 제조AX 성과확산 촉진
 - **(AX협의체 구성)** 지역별 제조AX 분야 산·학·연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 AX 확산 성과를 모니터링하고, 효과적인 성과 확산방안 기획
 - **(지역기업 교류회)** 지역 제조기업, 기술기업 간 교류회 활성화
 - **(지역 행사 개최)** 제조AX 우수사례 공모전, 정책 설명회 등을 지역 단위로 운영, 지역기업의 참여도 제고 및 정책 홍보
 - * 공고 등 주요 정책설명회 비수도권 4대 권역(충청, 호남, 영남, 강원제주) 1회 이상 필수 추진

③ 소상공인 R&D 지원 기반 조성

- **(쟁점)** 중기부의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노력*을 통해 로컬기업가 등 소상공인 영역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모델 등장
 - * 스마트소상공인 지원,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(LIPS),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등
- 혁신적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위해서는 R&D를 동반한 BM 혁신 필요
- **(대응방안)**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①창업, ②성장, ③협력 단계별 소상공인 R&D 추진

구분	지원 대상	지원방안
[①창업] 로컬기업가 창업	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등에서 발굴된 혁신 소상공인 BM 실현 R&D 지원	창업성장-디딤돌 R&D과제 연계
[②성장] 투자연계 고도화	민간투자사가 선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(LIPS)의 BM 고도화 R&D 지원	팁스방식 R&D 참고하여 신설 (세부사업, 내내역 등 신설 검토)
[③협력] 공동 BM 혁신	협동조합 등을 통해 발굴한 소상공인 공동 BM 혁신 수요에 대한 R&D 지원	공통수요를 발굴하여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-학연 컨소시엄형 R&D 지원 (27년 신규사업 기획)

V. 기관별 경영관리실적

① 안전 및 재난관리

- (안전관리) 재해경감 관리체계 구축→재해경감 우수기관 인증('22~'25, 행안부)
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 45001) 구축·인증, 임직원+협력업체 위험요인 발굴 → 무(無)재해, 안전 사각지대 ZERO 환경조성
 - 기관장의 미화, 보안 등 협력업체 간담회, 안전보건신고센터 운영, 아차사고 공모대회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·조치
 - *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건강검진 → 1:1 심리상담 → 명상 힐링 프로그램 지원
⇒ 전문기관 위탁 마음검진 결과 : 잠재위험군 비율 ('24) 23.3% → ('25) 6.2%, 17.1%p 감소
- (정보보안) 정보보안경영체계 인증,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'우수',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'A' 등급
 - 사이버위협 신속대응 자동화솔루션(SOAR*)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자동대응 시간 5분→1분 이내(평균 12초)로 단축
 - * SOAR(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& Response) : 보안관제 전문노하우를 활용한 지능형 자동대응(탐지→분석→대응) 솔루션
 -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, Ddos 사이버공격 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

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

- (고용·정착) 지방이전 후('13) 신규 고용의 31%(95명) 지역 인재 채용, 현원의 78%(229명)가 이전 지역에 정착
 - * 정규직 292명 중 229명이 대전, 세종, 청주 등 충청권 정착
- 지속·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·가정양립 가족친화제도* 운영 인증·표창
 - (노동부)일·가정양립 우수사례 공모 '우수상', (인사혁신처) 인사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(포용적 인사), (교육부) Best HRD 우수 인증 등
 - * TIPA 패밀리 데이(임직원 가족 초청행사), 정시 퇴근문화조성(PC-OFF 도입), 가족사랑의 날, 다양한 유연근무제도, 기관특화 출산지원,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

- **(소바구매)** 최근 5년간 지역구매 3,068백만원, 지역 농산물 172백만원 구매
 - 이전지역 생산 재화·서비스 우선적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
 - 지방 살리기 세종시 자매결연, 조치원 시장·보람동 상인회 상생협약
→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조성
 - *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선결제·구매·소비촉진 캠페인('25. 32백만원)

□ **(사회공헌)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활동 우수기관 선정**

E(환경)	S(사회)	G(업(業) 연계)
.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및 기부 활동 . 병뚜껑을 활용하여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기부활동	. 공적항공 마일리지 활용·기부활동 . 수해피해지역, 산불피해지역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상생활동 . 중소기업 대상 안전진단 프로그램	. 연말맞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, 백년가게 식사권 기부 활동 .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수준 진단 프로그램 진행

□ **(지역발전)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, 정부 정책 연계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운영**

- ① **(산업단지)** 세종테크벨리 정책심의위 참여 지역발전 방안·입주사 등 심의,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·유희부지 활용 무료 주차장 조성 등
 - *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2개교 스쿨존 안전시설물(노란발자국) 설치, 안전진단 등 실시
- ② **(성장지원)** 지역기업 성장 단계별 R&D기획, 컨설팅, 시험·인증,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(성장 사다리 지원)
 - * 지원실적(개) : ('23) 42 → ('24) 26 → ('25) 28
- ③ **(연계지원)** 세종TP·지역 소재 대학(고려대, 흥익대)과 연계·협력하여 연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(시군구연고산업육성)
 - * 지원실적(개) : ('23) 19 → ('24) 21 → ('25) 21 / 세종시 연고산업 : 식품·푸드테크

3 대국민 소통 노력

□ **(고객만족도)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('22) 82점 → ('24) 88.2점, 6.2점 상승**

* 국민공감대상 중기부 장관상(동아일보 주최), 한국공공브랜드 최우수상(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)

1 접근성·편의성 제고	2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	3 대국민 체감 홍보 혁신
. 전주기 사업 정보 전달체계 마련 - 연구비 FAQ, 우수성과 사례공유 등 . 정보제공 다변화로 접근성 강화 - 사업정보 뉴스레터, 카드뉴스, 유튜브 라이브, 모션그래픽, 숏폼영상, 웹툰 등	. 적극행정 활성화로 부서별 제안 건수 625% 증가(4건→29건) . R&D사후행정 민원감소를 위해 유관기관 최초 고시 개정사항 발굴 - 혁신법 미비사항' 과제완료기한 명시	. 콘텐츠 다변화(페이크 다규, 인스타툰 등) . 정책정보 등 유튜브 수시공유, 채널 활성화 . 국민체감형 언론홍보 강화로 기관 언론 언급량 31.9%, 보도자료 보도율 27% 증가

VI.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

① 제조데이터 · 제조 시 활용 기반 강화 ('25년 국정감사)

- (지적사항) 스마트제조 관련 데이터 표준 도입 등 제조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필요

제조데이터 공장에서 발생하는 설비상태, 작업조건, 제품 품질, 생산·물류 흐름, 경영 정보를 모은 디지털 기록

* (예시) 설비(센서 값, 가동률, 고장이력), 공정(조건, 사이클타임, 수율, 불량 원인), 품질(검사결과, SPC 지표, 클레임), 생산·물류(계획·실적, 재고, 납기), 경영관리(원가, 생산성, 수익성 등) 데이터 등

* (사례) 유압 프레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·진동 데이터 수집 및 시분석을 통해 장비의 이상 징후 사전 판단

⇒ 제조데이터는 고장 예방, 품질 향상, 생산성 개선, 경영 의사결정, 규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장을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핵심 자산

- (개선방안) 제조현장 내 핵심 장비·공정 제조데이터 참조모델(AAS* 기반) 개발 및 확산 → 중소 제조기업의 표준 활용 기반 마련

* Asset Administration Shell : 제조 기계, 장비, 부품 등 제조 자산의 정보를 구조화하여 시스템 간 교환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하는 기술(표준모델 IEC 63278-1)

- (개발 확대) 제조현장 내 표준도입의 시급성 고려 개발목표 상향 조정
→ 핵심장비 500개(누적)* 표준화('26)

* 기존 목표 : ('24~'25) 165개, ('26) 210개, ('27) 125개 → 변경 목표 : ('26) 335개

- 개발기관 확충('26, 2개+@) + 검증 프로세스* 개편으로 검증 기능 효율화

* 주요절차 : 개발계획 승인 → 제출 → 검토 → 수정/보완 → 검토/반영 → 배포

- (표준생태계 조성) 개발된 참조모델의 공유플랫폼(Git-Hub 등) 운영·확산 → 제조현장의 표준 확산 생태계 조성

- (실증/확산) 정부사업의 AAS 표준 적용* 확대 + 표준교육(6개) 과정운영
→ 중소기업의 표준모델 확산 촉진

* '26년 정부지원 조건 : [의무] 자율형공장, 디지털협업공장, [가점] 정부일반형 등

제조데이터 표준 교육과정 중소기업 관점 제조데이터의 정의, 수집·활용 방안 등 체계적인 교육

· (교육구성) 표준화 기초지식 → 표준 참조모델 활용 → 현장 적용 등 표준역량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·운영

· (교육실적) 표준활용 실 수요자 대상 교육 추진('25. 1,673명 수료)

② 틱스(TIPS) 지원제도 개선 필요 ('25년 국정감사)

- (지적사항) 틱스 지원분야 다양화 및 시장성, 회수 가능성 평가, 실패자산 관리 제도 마련 필요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산업 편중 해소	- 특정 산업 불황 시 연쇄 타격을 막기 위해 업종별 균형을 맞추는 '포트폴리오 관리형' 도입 을 제안
② 시장성·회수가능성 선정기준 강화	-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 등 현실적인 지표 를 평가 기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
③ 실패자산 관리	- 폐업 기업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전무,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자산화 하여 재도전을 지원하는 ' 실패 자산 관리제 ' 도입 촉구

- (개선방안) 틱스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단계별 추진 → 제도 개선안 마련 후 의원실 보고(~'26.3.)

* 1차(운영사, '25.11.26.), 2차(기업, 12.4.), 3차(전문가, 12.11.) 등 총 3회 간담회 개최

분야	현장의 목소리	개선방향(안)
① 산업 편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운영사를 우대 선정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한 다양한 업종 참여 유도가 효과적 ■ AI는 기반기술로 타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됨 (이를 특정 분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) ■ 쿼터를 정해 인위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기반한 틱스의 근본 취지 훼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화형 운영사 활용을 통한 자율적 생태계 조성, 포트폴리오 다양성 확보
② 선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초기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회수 보다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는 '지속 가능성' 관점의 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■ 틱스는 민간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정책으로 운영사들은 사업성 및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별 투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성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'실효성' 제고
③ 실패 자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순 연명 지원은 지양, 재창업 지원과 연계하여 실패 기업의 자산이 신속히 재기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 필요 ■ 실패 경험, 결과 리포트가 후배 창업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레퍼런스로 활용되길 희망 ■ 실패과제에 대한 불이익 제거, 실패 용어를 'First Pioneer'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, 재도전 지원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기기업을 사전에 포착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AI 기반 성장지원 시스템 구축